

이스라엘 민족의
3,000년 수난사
그리고
‘그 희망’(התקווה)과
‘오름’(עליות)의
궁극적 승리

- 성경은 믿음의 글(해석)이자 사실에 대한 역사기록입니다.
- 다만 성경의 역사는, 모든 역사 기록이 다 해석의 글이듯이, 뜻으로 본 믿음의 글, 역사적 사실을 야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해석된 글들입니다. 회개와 천국 (위로와 구원과 회복), 흑암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되는 위로와 구원과 회복에 관한 글입니다.
- 성경 66권에서 39권을 차지하는 구약성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수난사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베리트'(언약)와 그 언약에 대한 '에무나'(믿음)와 '미츠보트'(계명들)의 실천과 나라 회복에 대한 '하티크바'(그 희망)라는 재료들로 버물려진 맛나고 영양가가 매우 높은 비빔밥 요리와 같습니다.

구약성경/타나크(Tanakh)

- 토라(Torah,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네비임(Nevi ' im, 예언서 8권)
 -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호세아-말라기)
- 케투빔(Ketuvim, 성문서 11권)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서

- 하나님의 '베리트'(언약)
- 그 언약에 대한 '에무나'(믿음=신실함, 충실함)
- 하나님의 '미츠보트'(계명들=언약의 말씀들)에 대한 신실함, 충실함
- 나라 회복에 대한 '하티크바'(그 희망): '그 희망'은 회개로 회복되고 지속됨

➤ 27권을 차지하는 신약성경은 대부분이 니케포로스(Nικηφόρος)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에 기초한 니케포로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믿음)하는 자들의 고난으로부터의 승리와 영광(월계관)에 관한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 곧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우편보좌에 앉으신 길은 뒤따르는 ‘정복자 그 이상인 그리스도인들’ (ὑπερνικῶμεν)을 위한 생명의 길과 그 DNA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 니케포로스의 진리와 생명의 길

➤ Nικηφόρος: ‘니케포로스’는 ‘승리를 지닌 자’ 혹은 ‘승리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고, ὑπερνικῶμεν: ‘히페르니코오멘’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more than conquerors)이다’라는 뜻입니다.

➤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최후 승리’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예수님을 가진자가 모든 것을 가진자다.
Qui a Jesus a tout

聖多明我 聖多明我 聖多明我 聖多明我 聖多明我

이 말은 테레사 수녀, 십자가의 성 요한 등 갈멜회 수도자들이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던 경구입니다. 1866년 3월 30일 성금요일에 충청수영(갈매못)에서 군문효수를 당한 프랑스 선교사 다블뤼 주교도 가족을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경구를 문장 첫머리에 썼고, 주교품을 받을 때에도 주교 문장 안에 이 경구를 새겼습니다. 다블뤼 신부는 조선 후기 박해가 한창이던 1845년 페레올 주교 및 김대건 신부와 함께 상복차림으로 조선에 입국하여 목이 베이는 순간까지 21년간 질병과 배고픔과 싸우며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처음 그리스도께서 닦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딛고 설만한 단단한 생명과 진리의 순례길로 다져져 왔습니다.



니코포로스 비잔틴 황제의 금화(AD 802-803)

전면에 십자가를 손에 쥔 니코포로스 황제 상반신 윗쪽에 'NICIFOROS BASILE, 니코포로스 왕'이라고 새겼고, 뒷면에 십자가상 둘레에 'IHVSXVS HICAX,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고 새겼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주조된 주화(Romanus IV Diogenes, AD 1068-71년)
전면에 복음서를 가슴에 안은 예수님의 용안 좌우에 IC-XC NI-KA,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니케포로스)라고 새겼고, 뒷면에 십자가 사이에 C(Σωτήρ)-R(Ρωμανῶν) / P(Πατήρ)-Δ
(Δεσπότης)' 곧 제국의 구세주, 성부 하나님(군주)이라고 새겼다.

C-R / P-Δ

C (Σωτήρ)-R (Ῥωμανῶν)

P (Πατήρ)-Δ (Δεσπότης)

나라의 구세주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국장]

기름을 공급하는 올리브
나무와 어둠을 밝히는
메노라(등대)





FerrellJenkins.blog

아멘호테프 2세(재위 1453-19 BC).
출애굽(1446 BC) 당시의 파라오

기원전 15세기경 이집트 제18왕조의 재상 레크미르(Rekhmire, 출애굽 당시의 인물)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금속 가공 및 진흙 벽돌 제작 장면을 묘사한 벽화 - 룩소르 귀족들의 계곡에 위치한 무덤으로 당시 카르나크의 아몬 신전을 위해 일했던 노예들 및 장인들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묘사하였다.



고대 이집트 중왕국
시대(기원전 20세기)
부터 시작해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약
2,000년 동안 역대
파라오들이 증축과
개축을 반복하며
완성시킨 이집트의
최고 신인 태양신
아문(Amun,
산양)을 비롯해
그의 아내
무트(Mut), 아들
콘수(Khonsu) 등을
모시기 위해 건설된
**룩소르의 카르나크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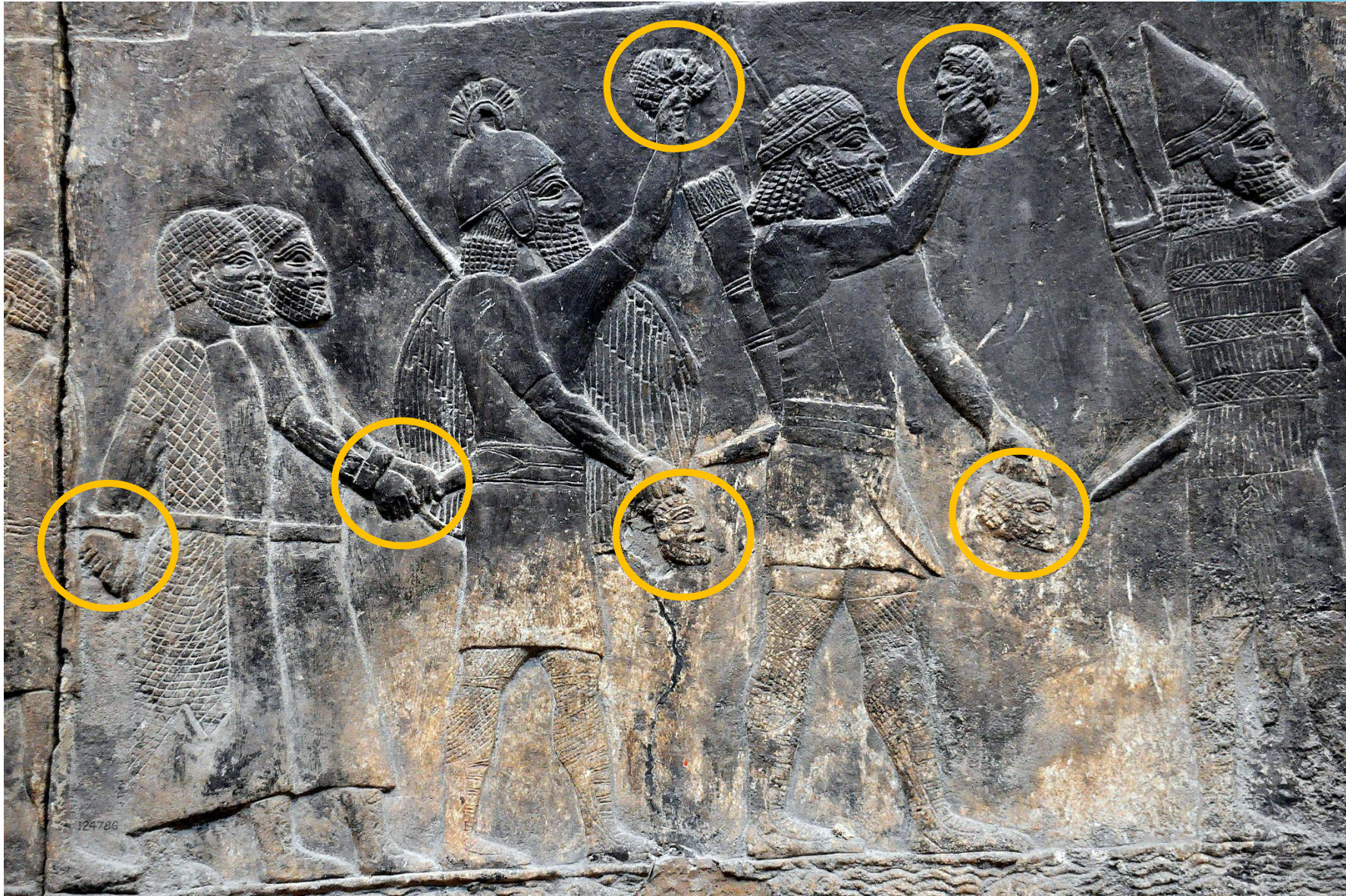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강제 노역에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
에드워드 포인터(Edward Poynter, 1867),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영국 길드홀 미술관 소장



좌측의 조각상은 시카고 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박물관에 소장된 **사르곤 2세(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의 왕좌실 입구 양쪽에 세워졌던 한 쌍의 라마수들 가운데 하나이고, 우측의 조각상 한 쌍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두르샤루킨(Dur-Sharrukin, 사르곤 2세가 건설한 도시명)의 사르곤 2세 궁전의 라마수이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 **센나케립(산헤립,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르곤 2세의 아들, 재위 705~681 BC)**이 *****알람무(-alammu)** 마을을 정복한 뒤, 주민들을 사로잡아 끌고가는 모습의 부조. **센나케립(산헤립)**은 남 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14년(701 BC)에 유다를 공격하였다(왕하 18:13).



나무 말뚝에 꿰인 피점령지인들의 모습
디글랏 빌레셀3세 통치 시기(730-727BC)

왼쪽은 아시리아 제국의 왕 **센나케립(산헤립)**, 재위 705~681 BC)이 히스기야 왕 때인 기원전 701년에 예루살렘 남서쪽 40KM 떨어진 해발 320M 언덕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 **라기쉬**를 정복한 후 지도자들을 **말뚝에 박아 처형**하는 모습의 부조. 오른쪽은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 시기의 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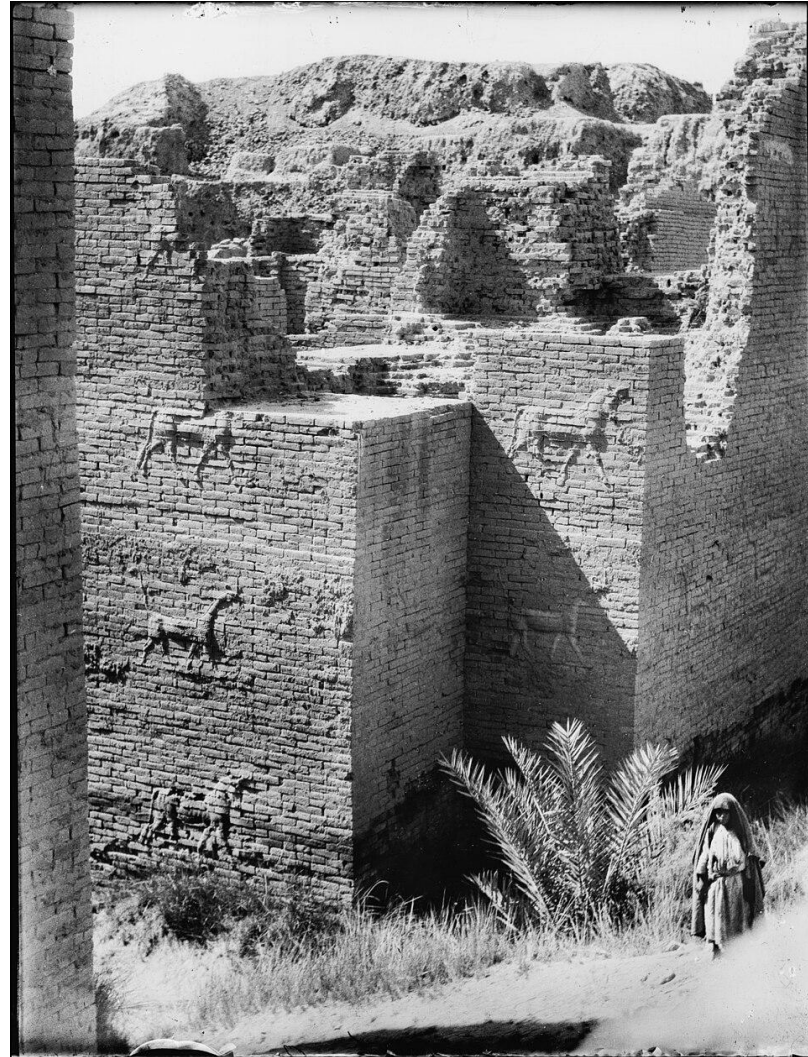
아시리아 제국의 왕 **센나케립**(산헤립,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르곤 2세의 아들, 재위 705~681 BC)이 히스기야 왕 때인 기원전 701년에 예루살렘 남서쪽 40KM 떨어진 해발 320M 언덕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 **라기쉬**를 정복한 후 센나케립이 포로들을 검열하는 모습의 부조.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제2대 왕 느부갓네살 2세(Nebuchadnezzar II)가 건축한 이슈타르(Ishtar) 문

Nebuchadnezzar
“느보 신이
국경을 지키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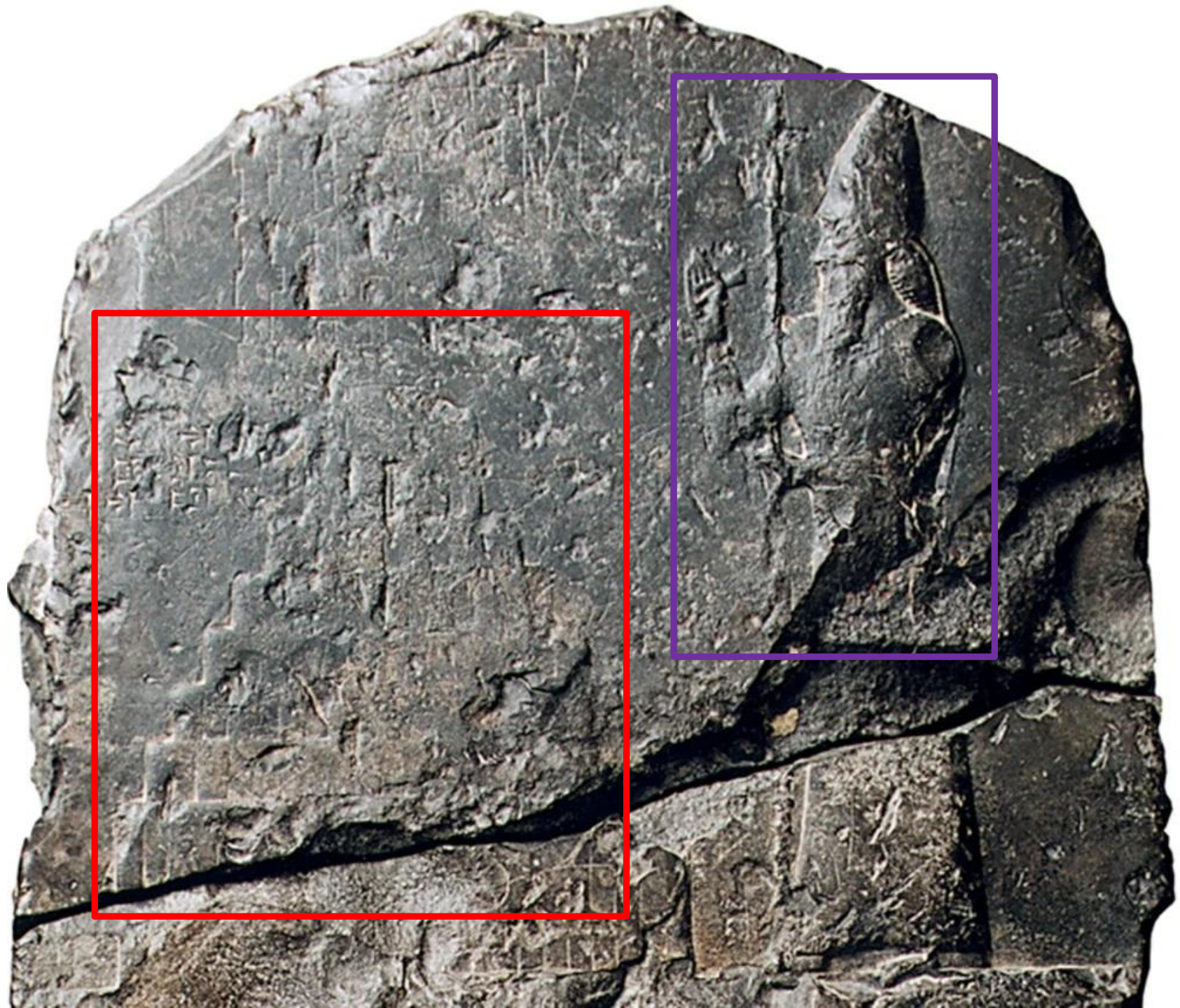
1930년 바빌론
유적 발굴 모습을
찍은 사진

2004년에 복원한
바빌론의
이슈타르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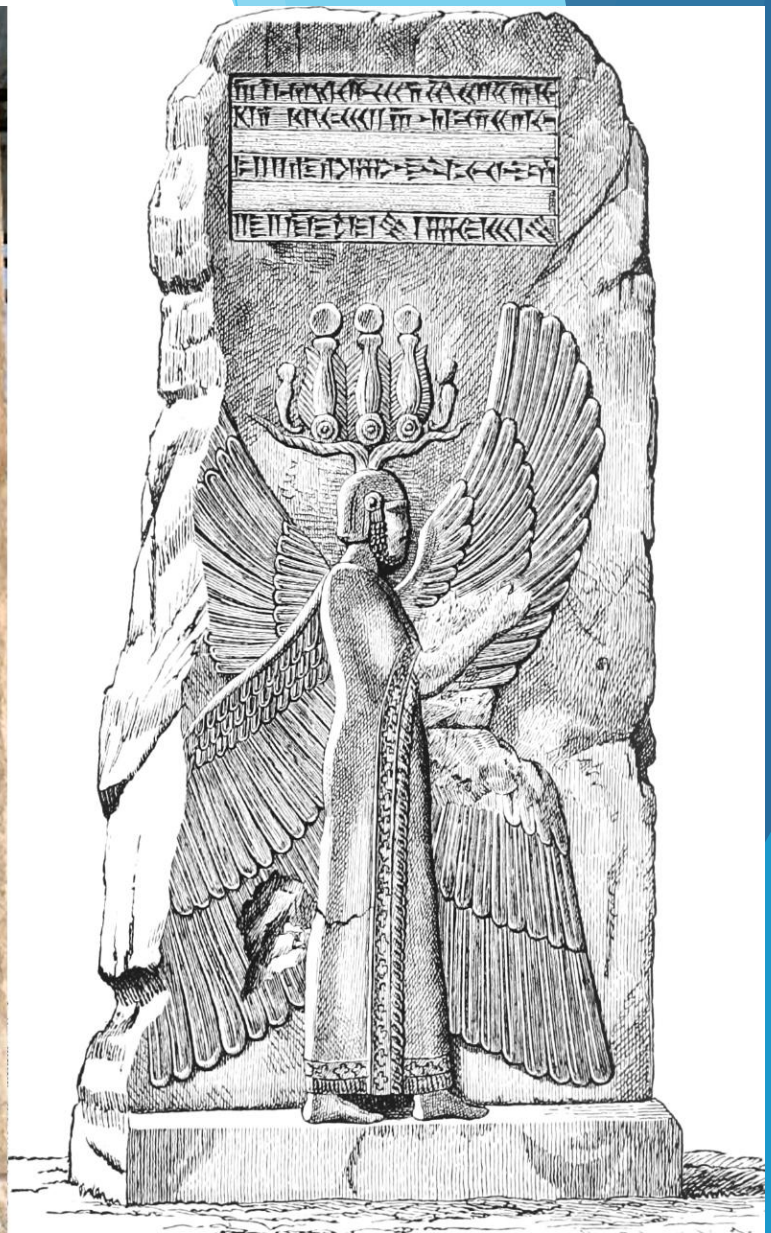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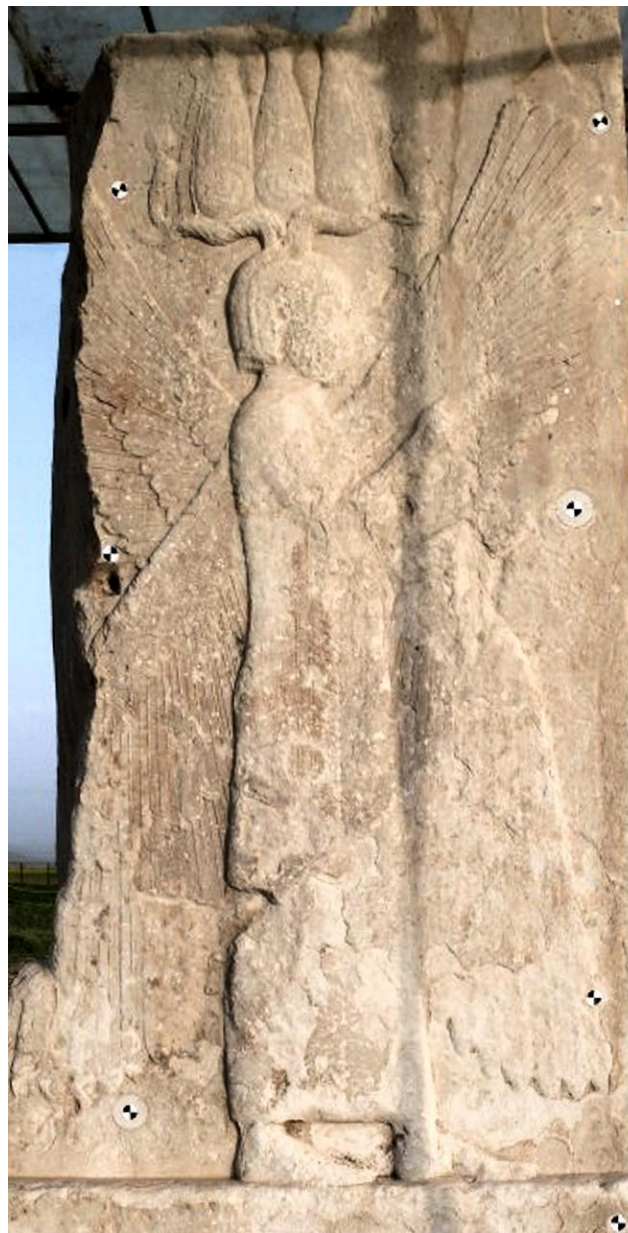
느부갓네살 2세 왕이
바빌론에 건설한
지구라트, 즉 마르두크
신에게 바쳐진 탑 옆에
서 있는 모습.

현존하는 **느부갓네살 2세**의 모습을 묘사한
네 점의 비석 중
하나이며, 비석 왼쪽
면에 계단식으로
보이는 **지구라트**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유사한
건축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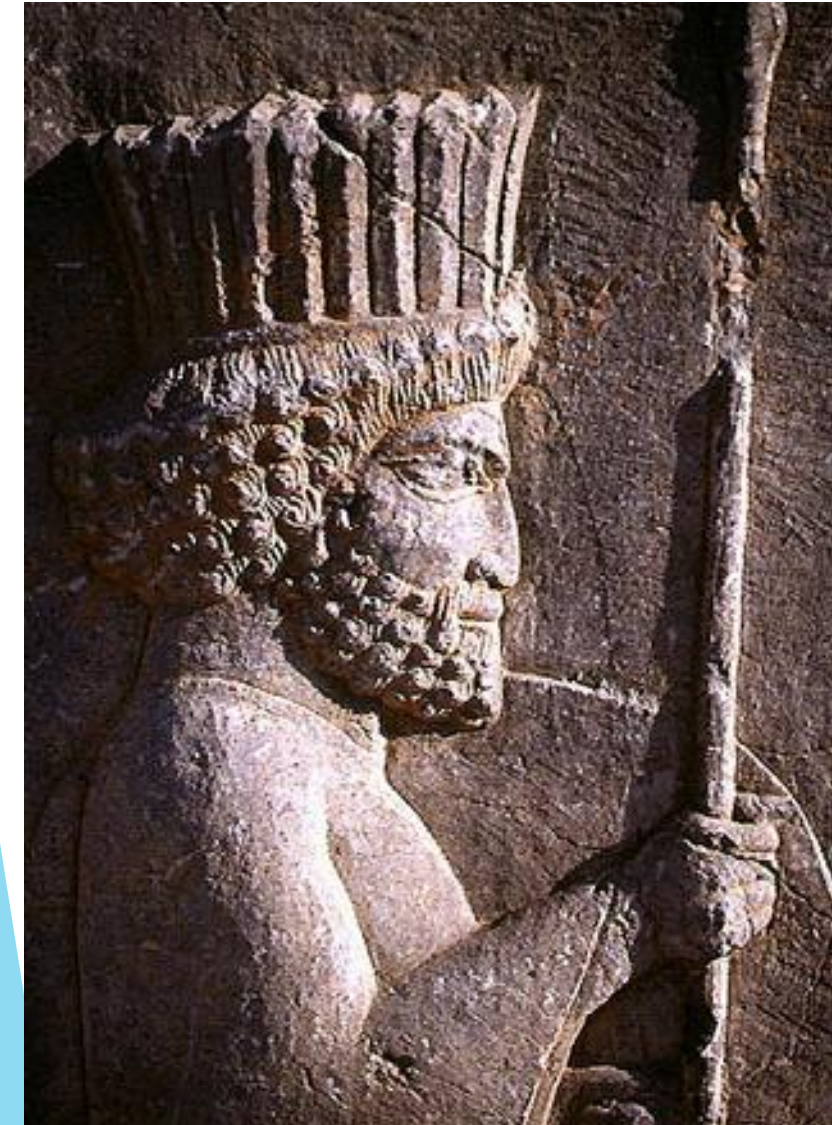




예루살렘 다윗 망대 박물관에 전시된 바빌론 유배(Babylonian captivity, גלות בבל, Galuth Babel)를 묘사한 부조(작품 제작 연도 1989년 무렵).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모습. 오른쪽 상단은 예루살렘이 불타는 모습이고, 하단은 바빌론의 상징인 지구라트와 이슈타르 성문이다.



자원하는 유대인들을 고토인 유대 땅으로 돌려보낸 **관용과 통합의 지도자 고레스**(Cyrus) 황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에 무혈입성하여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영토를 흡수하였다.



다리우스 1세(재위 522-486 BC)는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제9대 왕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군주였다. 쿠데타를 통해 즉위한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제국의 기틀을 완벽히 다져 **“샤한샤”(왕 중의 왕)**로 불렸다. 우측은 베히스툰(Behistun) 비문이다. 다리우스는 유일신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으나, **피정복민의 고유한 종교, 언어, 관습을 존중**하였다.



튀르키예 팜필리아 지방의 해안 도시 **시데(Side)**의 스타테르 주화(360-333 BC)
전면에 기단에 선 **니케포르스 아테나**를, 좌우에 시데를 상징하는 석류와 주조 책임자를 뜻하는 ΠΘ를 새겼다.
뒷면에 아폴론이 제주잔을 들고 제를 올리는 모습을 새겼다. 새겨진 글귀는 시데 문자로써 도시 또는 민족의
명칭으로 해석된다.



기원전 333년(아닥사스다 치하)경 드라크마, 가자(Gaza)에서 발굴되었으며, 앞면의 투구를 쓴 인물은 총독(페르시아 장군) 바고아스(Bagoas)로 추정된다. 뒷면의 세 개의 아람어 글자는 YHD(예후드)로 읽힌다. 날개 달린 바퀴는 아혜의 네 생물(케루빔) 곧 병거 바퀴일 가능성이 높다. 아혜의 손에 매를 올린 것은 니케포로스 혹은 아에토포로스(독수리를 손에 든 제우스)의 모방일 수 있다.

알렉산더와 부케팔루스

모자이크-이수스 전투
(기원전 333년 11월
5일) - 나폴리 Museo
Archeologico Nazionale

소장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사이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써

1831년 10월 24일
폼페이 유적의
파우누스 신전에서
발견된 바닥
모자이크이다.







트라키아 왕국의 리시마코스 테트라드라크마(305-281 BC)

전면에 아몬 뿔을 두른 알렉산더 대왕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니케포로스(승리를 소유한 자) 아테나가 'ΒΑΣΙΛΕΩΣ ΛΥΣΙΜΑΧΟΥ'(리시마코스의 왕)이라고 쓴 문자 사이에 창과 방패를 곁에 두고 앉아 있는 모습을 새겼다. 그리스도인은 '정복자 그 이상'(ὕπερονικῶμεν)이므로 '니케포로스'(Nikephoros)이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주화(c. 215-164 BC)

전면에 안티오코스 4세의 옆 얼굴을 새겼고, 뒷면에 보좌에 앉은 **니케포르스 제우스**가 왼손에 삼지창을 쥐는 모습을 새겼으며, 헬라어로 오른쪽에 **ΘΕΟΥ ΕΠΙΦΑΝΟΥΣ / ΝΙΚΗΦΟΡΟΥ**(**신의 현현, 승리를 지닌 자**), 왼쪽에 **ΒΑΣΙΛΕΥΣ ΑΝΤΙΟΧΟΥ**(안티오코스의 왕)이라고 새겼다.

셀레우코스 왕조(175-164 BC)의 8대 군주인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상대로 연전 연승했고, **종교로 제국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국의 국교인 그리스 종교를 전 신민이 따르도록 강요했다. 제국 곳곳에 제우스 신전을 설치했고, 토착민들에게 기존에 믿던 신 대신에 제우스를 섬기도록 강요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엄중하게 실시했다. 이로 인해서 마카베오 전쟁을 초래했고, 안티오코스 4세의 사망 이후 유대인들은 기원전 64년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좌측의 주화 전면 두상은 니케포로스 제우스로서 안티옥코스가 자신을 제우스의 계시(현현)로 표현하고자 하여 주조한 것이었다.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Gnaeus Pompeius Magnus, 106-48 BC)는 폰토스(본도)와 비티니아(비두니아), 시리아(셀레우코스 왕조), 유대지역을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킨 인물이다.



צילום: אלברוס

유대-로마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AD 70-73) 마사다(Masada) [사진 : 알바트로스]



- ▶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제10군단이 유대인 노예 약 6,000명을 동원해 서쪽 절벽에 쌓아 올린 경사로
- ▶ 길이: 약 200m, 높이: 약 73m-114m
- ▶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의 결연한 연설 후 제비 뽑아 자결한 숫자가 총 960명, 숨어있던 여성 2명과 어린이 5명만 생존
- ▶ 자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유대-로마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AD 70/9/26-73/4/15 보름 유월절 밤) 마사다(Masada)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정복 기념주화(데나리온, AD 69-79)

전면에 월계관을 쓴 베스파시아누스의 두상을, 둘레에 “IMP CAESAR VESPASIANVS AVG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베일을 쓰고 주저앉아 왼팔을 턱에 괸 채 슬픔에 빠진 유대인 여인(유대/시온을 상징)을 전리품과 함께 새겼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세스테르티우스 주화(AD 71)

로마가 유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듬해에 주조된 청동 세스테르티우스(Sestertius)로서 전면에 월계관을 쓴 베스파시아누스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IMP CAES VESPASIAN AVG P M TR P P P COS III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신관 호민관 국부 집정관3회)”라고 새겼다. 뒷면에 대추야자 나무를 중앙에 새겼고, 우측에 슬픔에 잠긴 유대인 여성(유대/시온의 상징) 포로(노예)를, 좌측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호신용 단검 (parazonium)을, 왼쪽 발을 투구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새겼다. 그리고 둘레에 “**IUDAEA CAPTA(유대 정복되다)**”라고 새겼다.



티투스의 유대정복 기념주화(데나리온, AD 79)

전면에 월계관을 쓴 티투스의 두상을, 둘레에 “IMP T CAESAR VESPASIANVS AVG(임페라토르 티투스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양손이 뒤로 묶인 채로 무릎을 꿇린 유대인 전사를 전리품들과 함께 새겼고, 둘레에 “TR POT VIII COS VII(호민관 8회 집정관 7회)”라고 새겼다.



티투스의 장군의 개선문 안쪽의 부조



티투스의 장군의 개선문 안쪽의 부조에 새긴 예루살렘 성전의 메노라(금등대), 떡상, 나팔 장대에 매달아 치켜든 무비카메라처럼 생긴 판들은 포로와 노획물 등을 적은 계시판이다.



시몬 발 코크바의 유대 테나리온 주화(주후 134-135년)
전면에 시몬(Simeon)이라고 새겼고, 둘레에 아몬드 열매로 환환을 새겼다. 뒷면 중앙에 수금(Lyre)를, 둘레에 “이스라엘에 자유를(to the freedom of Jerusalem)”이라고 새겼다. 아몬드와 수금은 나라의 회복과 풍요와 자유를 상징한다.



발 코크바의 유대 데나리온(AD 132-135)

전면에 부활(회복)을 상징한 포도송이와 가지를 새겼고, 둘레에 “시몬(Simeon)”이라고 새겼다.

뒷면에 승리를 상징한 두 개의 나팔과 그 둘레에 “예루살렘에 자유를(to the freedom of Jerusalem)”이라고 새겼다.



하드리아누스의 유대 도착 주화(주후 134/5-138년)

전면에 월계관을 쓴 옆 얼굴에 “HADRIANVS AVG COS III PP(하드리 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새겼고, 뒷면에 왼쪽에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에 도착해서 환영인파에게 손을 들어 화답하는 모습과 오른쪽에 유대가 왼손에 신주병 神酒瓶,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습, 그들 앞에 제단과 희생제물이 놓인 모습, 그리고 그 둘에 “ADVENTVI AVG IVDAEAE, SC(황제의 유대 도착, 원로원의 법령)”이라고 새겼다.



주후 136년 새로운 식민지 '아엘리아 카피톨리나(예루살렘) 설립' 주화
전면에 "IMP[ERATOR] CAES[AR] TRAIANO HADRIANO AVG[VSTO] P[ATRI] P[ATRIAE]"(국부
카이사르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글과 월계 머리띠에 갑옷을 입은 흉상을
새겼다. 뒷면에 "COL[ONIA] AEL[IA] CAPIT[OLINA] COND[ITA]"(아엘리아 카피톨리나 식민지
설립)"이라고 새겼다. 대신관인 황제가 겨리소로 쟁기질하는 것은 국경선을 긋는 즉 식민지 설립을 뜻한다.
'아엘리아'는 하드리아누스 가문 명칭이고, '카피톨리나'는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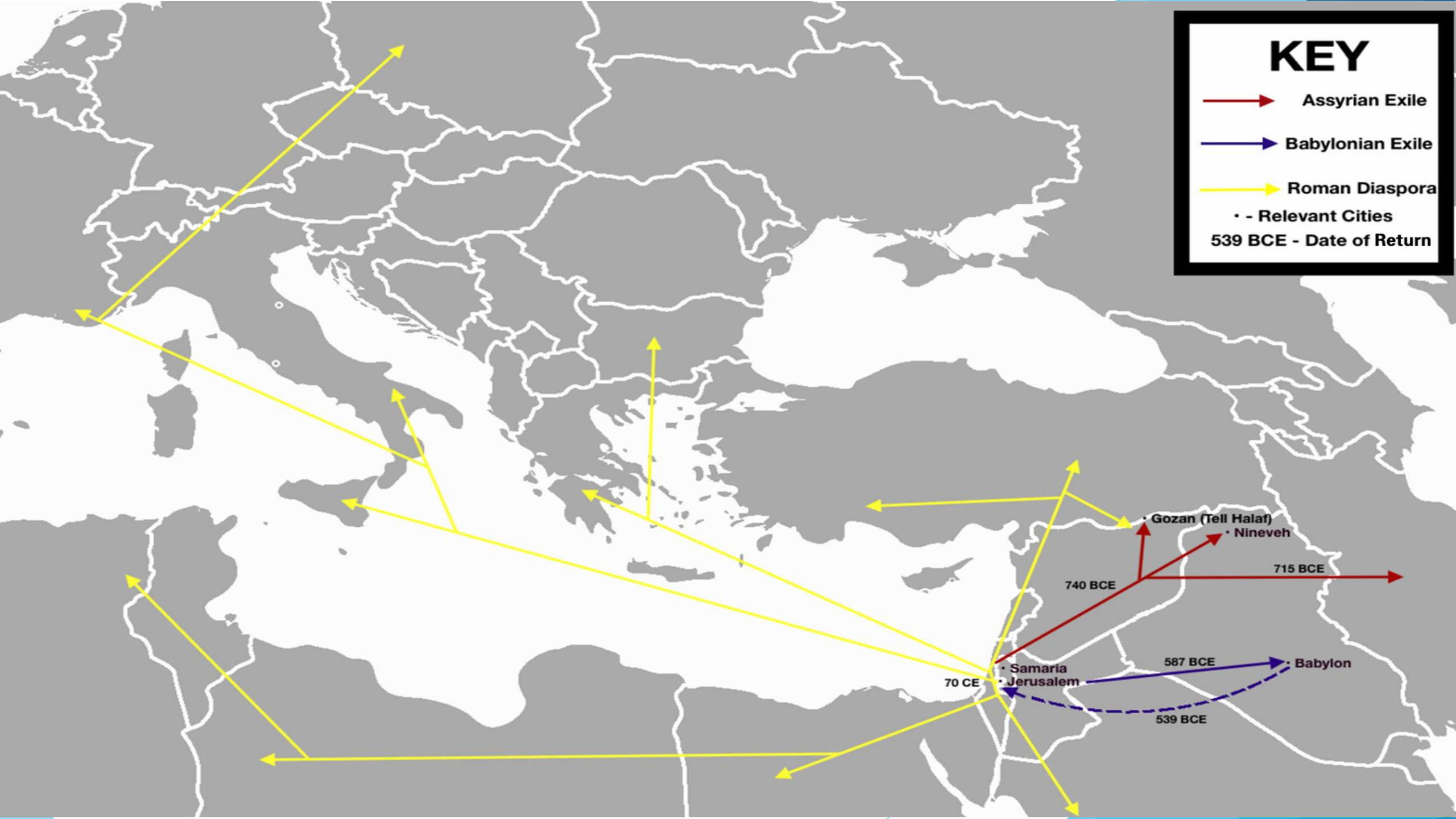
→ Assyrian Exile

→ Babylonian Exile

→ Roman Diaspora

• - Relevant Cities

539 BCE - Date of Return



➤ 고대 시대: 최초의 유대인 분산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고 **제국 전역으로** 추방함으로써 '잃어버린 열 지파'가 되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제1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 엘리트들을 메소포타미아로 추방했다(바빌론 유배).

•기원전 539년: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들이 유대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남아** 유대인 학문의 주요 중심지를 세웠다.

•기원전 3세기: 헬레니즘 시대 **이집트(특히 알렉산드리아)**에 크고 번성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곳에서 토라가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70인역, LXX).

➤ 로마 시대: 세계적 확산

•서기 70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 이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제2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흩어지게 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 로마 시대: 세계적 확산

•서기 132~135년: 바르 코크바 반란의 실패로 로마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입국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널리 흩어지게 되었다.

➤ 중세 시대: 지역 분리와 추방

•7세기~11세기: 이슬람 황금시대(바빌로니아, 북아프리카, 스페인)에 유대인 공동체가 번성하는 한편, 유럽에서는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세파르디 유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290년: 에드워드 1세는 유대인을 영국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1492년, 알함브라 칙령으로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추방되었고,

•1497년에는 포르투갈에서도 같은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오스만 제국, 북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7세기: 우크라이나의 흐멜니츠키 학살과 같은 반복되는 유대인 학살을 피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유대인의 대다수가 **동유럽에** 정착하게 된다.

➤ 근대 시대: 이주와 국가 형성

•1881년~1914년: 러시아 제국 내 반유대인 학살로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주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이와 동시에 시오니즘 운동(**알리야**)의 초기 물결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팔레스타인으로 향했다.

•1939년-1945년: 홀로코스트는 유럽 유대인 사회를 황폐화시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게 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선포되면서 2,000년에 걸친 무국가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 직후, 적대감으로 인해 아랍 및 이슬람 세계의 유대인 약 백만 명이 이스라엘과 서방으로 대규모 이주를 하게 되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다비드 벤키투리온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이스라엘의 출범을 선포하는 장면의 사진



יִשְׂרָאֵל הַמְשֻׁחָרֶת תַּשׁ"ח
이스라엘 해방됨 1948



יְהוּדָה הַשְּׁבוּיָה ג'תת"ל
유다 사로잡힘 3830(AD 70)



עֶשְׂוֹר לְחֵרֻת יִשְׂרָאֵל תַּשְׁי"ח

이스라엘 해방 10주년 5718(AD 1958)



גְּלַתָּה יְהוּדָה תת"ל

유다 사로잡힘 70



이스라엘이 건국기념으로 1948년에 주조한 최초의 근대 히브리 알루미늄 주화이며, 시몬 발코크바가 AD 132-135년 사이에 유대 데나리온에 새겼던 부활(회복)의 상징인 포도송이를 새겨 넣었다. “25 Mils”(1927-48년 영국 위임통치 시절의 화폐)과 “Israel”를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썼다.



이스라엘의 25 프루타(Pruta) 주화. 1948-52년 사이에 Mil를 대체하여 주조한 주화. 1952-80년 사이에는 파운드, 1980년 이후에는 셰켈로 바뀜. 전면에 올리브 가지를, 뒷면에 포도나무를 새겨 넣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부활 곧 풍요와 자유를 상징하였다.



이스라엘의 50 프루타(Pruta) 주화. 1948-52년 사이에 Mil를 대체하여 주조한 주화. 1952-80년 사이에는 파운드, 1980년 이후에는 셰켈로 바뀜. 전면에 올리브 가지를, 뒷면에 포도나무를 새겨 넣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부활 곧 풍요와 자유를 상징하였다.



이스라엘의 20 셰켈(Sheqalim) 금화(2010년, 히브리력 5770년)에 주조
전면에 다윗성을, 뒷면에 유다지파의 상징인 사자를, 그 위에 이스라엘의 국장을 새겨 넣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희망'을 표현하였다.